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355>

JCCT 2024-11-45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Positive Effects of Field Practice on Job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신영지*, 이은주**, 윤유라***

Shin Youngji*, Lee Eun-Ju, Youn You-Ra*****

요약 본 연구는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개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문항을 설정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가 현장실습 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성실성, 업무이해도, 현장적용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자신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직무태도 형성에 중요한 교육적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시,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강단과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습기관 간의 표준화된 실습 프로그램 또는 최소한의 필수 경험 요소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현장실습, 직무태도, 업무수행능력, 긍정적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effects of field practice on students' job attitudes. For this purpose, nine items on job performance and attitudes were set and pre-post survey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all job performance and attitudes tended to increase after the field practice, and in particular,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sincerity, job understanding, and field application ability. Through the field practice, student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such as applying theoretical knowledge to actual work, re-evaluating their abilities, and gaining confidenc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field practice is an important educational tool for forming students' positive job attitudes. In the future, when operating field practice programs, it seem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academic instruction and the fiel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o set standardized practice programs or minimum essential experience elements between training institutions.

Key words : Field Practice, Job Attitudes, Job Performance, Positive Effect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12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10일

Received: August 12, 2024 / Revised: September 1, 2024
Accepted: November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yryoun@deu.ac.k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Korea

I. 서론

현장실습은 산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하게 하여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 즉,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향상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자신감, 조직 융화력,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성실성, 직업적 사명감 등의 복합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직무에 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형성의 중요성은 교육부가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의 항목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연구소, 산업체 현장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현장에 종사하기 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능력과 더불어 태도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K-CESA를 구성하는 6가지 영역 중 절반인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이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2].

표 1. K-CESA 문항구성
Table 1. K-CESA Question Construction

진단영역	구성요인
의사소통역량	듣기/토론과조정/읽기/쓰기/말하기
대인관계역량	정서적유대/협력/중재/리더십/조직에 대한 이해
자기관리역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목표지향적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직업의식
글로벌역량	유연성과 적극성/다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능력/글로벌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종합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대안적 사고력/추론적 사고력/분석적 사고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내용영역: 자원, 정보, 기술/수행요소: 수집, 분석, 활용

그렇기에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뿐 아니라 현장실습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의 향상뿐 아니라 긍정적인 직무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최근 현장실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실무기술에 대한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실제 관련 현장실습의 심리적인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은 진로탐색의 진취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내었

으며[3],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일 경험과 정보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며[4], 현장실습을 구성할 때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특히 현장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학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정보학 또한 현장을 기반으로 구성된 실용학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실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서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에서 교육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현장실습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을 구분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기 보다는 대부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 필요한 사전 실무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6]. 즉,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전공역량과 실무능력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헌정보학 전공의 대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다루어진 전공영역별 세부실무기술 실습을 통해 실무기술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6][7]. 본 연구에서는 다음 단계로 지식과 기술의 성장이 아닌 현장의 직무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미 그 효과를 확인한 지식·기술의 영역을 제외하고 태도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측정문항 개발

긍정적인 직무태도는 직무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9]. 주어진 직무에 임할 때 어떤 자세와 자각, 의욕을 가지고 행동하는지가 적극적인 지식습득

과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발전을 넘어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0]. 이러한 직무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성과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직무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K-CESA 문항과 D대학에서 산업체 대상으로 D대학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한 9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업무수행 능력은 전공지식수준,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아이디어창출)으로 3문항이며, 태도는 의사표현능력, 조직용화력, 업무적극성, 성실성, 업무이해도, 현장적용능력으로 6문항이다(<표 2> 참조).

표 2.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측정문항
 Table 2. Job Performance and Attitude Measurement Items

영역	내용
업무수행능력	(1) 전공지식수준
	(2) 문제해결능력
	(3) 창의력(아이디어창출)
태도	(1) 의사표현능력
	(2) 조직용화력
	(3) 업무적극성
	(4) 성실성
	(5) 업무이해도
	(6) 현장적용능력

설문지는 9개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해 자신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으며(1 = 매우 불만족, 5 = 매우 만족), 이와 함께 평가 점수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직무태도 변화와 그에 따른 감정적인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5점 척도 평가와 함께 각 문항별로 본인이 평가한 점수에 대한 이유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문항을 예시로 표현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예시
 Table 3. Examples of Questionnaire Questions

Q. 자신의 전공지식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Q. 자신의 전공지식수준 평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세요.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본 설문조사는 D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학생 중 2024학년도 1학기 사서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서실습 교과목은 1학기 개설과목이지만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해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실습은 2024년 1-2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0개의 도서관에서 동일하게 15일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장실습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전 설문조사는 실습 시작 전 집단교육에서 설문의 목적과 문항 구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설문조사는 실습이 종료된 후 다시 집단교육을 통해 설문의 의도와 내용을 재차 설명한 뒤 진행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 전후로 자신의 업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어떤 수준으로 평가하였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평가에 대한 서술 문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어떤 점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의 사전/사후 분석 결과

기술통계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현장실습 전후로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이 현장실습 후 향상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실성(p=0.008), 업무이해도(p=0.021), 현장적용능력(p=0.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강의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봄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적용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공지식수준,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표현능력, 조직융화력, 업무적극성의 경우, 현장실습 후 평균이 모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업무이해도와 현장적용 능력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즉각적으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 3주라는 짧은 실습기간 동안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표현능력 등과 같은 복합적인 능력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의 사전/사후 분석 결과
Table 4. Pre-Post Analysis Results of Job Performance and Attitude

구분	사전		사후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공지식수준	3.05	0.71	3.37	0.76	-1.679	.111
문제해결능력	3.79	0.54	3.95	0.62	-.900	.380
창의력(아이디어창출)	3.37	1.07	3.79	1.03	-1.804	.088
의사표현능력	3.47	0.90	3.89	0.94	-1.509	.149
조직융화력	3.79	0.79	4.05	0.85	-1.564	.135
업무적극성	4.11	0.74	4.37	0.60	-1.229	.235
성실성	4.00	0.58	4.47	0.70	-2.964	.008
업무이해도	3.47	0.70	4.00	0.47	-2.535	.021
현장적용능력	3.42	0.69	4.00	0.75	-3.284	.004

2.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변화의 질적 분석

앞서 통계분석을 통해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업무수행능력과 태도가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 문항을 분석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업무수행능력 변화 분석

먼저, 전공지식수준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전공지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장실습 후에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적용해 보면서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라서 전공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전공지식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전공지식이 낮지 않음을 인식하고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습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공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실습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실망감을 나타낸 학생들도 나타났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순간 판단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실습 중에 돌발상황을 해결하고,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고 창의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창의성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북큐레이션,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실무 활동을 수행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창의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창의력 발휘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한계를 경험하였다.

종합해보면, 전공지식수준,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모두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는 이를 확인할 경험이 없어 대체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재평가하고 자신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능력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변화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Analysis of Changes in Job Performance

구분	내용
전공 지식 수준	<p>긍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며 자신감을 얻음 ("실제로 실습해보니 목록, 조직 등 강의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되었음", "전공 지식을 통해 이용자 응대를 원활하게 수행함")
	<p>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전히 전공지식 부족하다고 인식함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음") 실습에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 ("다양한 업무를 배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다양한 업무 수행을 못함")

문제 해결 능력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하며 자신감이 향상됨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처", "이용자가 요청한 자료를 찾아드림", "현장에서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자신을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부족 ("대처가 어려움", "처음 실제로 맞이하는 문제들이었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창의력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현해보는 경험이 창의력 향상에 기여 ("북규레이션을 맡아 창의력을 발휘",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 "시민 큐레이터 서가 구성", "홍보자료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출")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함 ("창의력을 발휘할 상황이 많지 않았다", "창의력을 평가할 만한 일들이 없었다") 아이디어 창출에 어려움을 겪음("항상 아이디어 창출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실습 중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아이디어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음")

2) 태도에 대한 변화 분석

첫째, 의사표현능력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의사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의사표현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장실습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험 및 사서선생님들께 질문 등을 하면서 의사표현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여전히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용자와 소통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둘째, 조직융합력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일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실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직 내에서 융합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조직융합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짧은 실습 기간과 개인의 성격적인 이유로 인해 여전히 조직에 깊게 융화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셋째, 업무적극성은 현장실습 전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자신감을 보였다. 실습 후에도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주어진 업무 외의 일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등을 보여 실습이 학생들의 업무적극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넷째, 성실성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성실하게 임한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많았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 있게 임하며 본인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각이나 결석을 피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실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다섯째, 업무이해도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처음 접하는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학생들이 많았으나, 실습 후에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이 어떻게 실제 업무에 반영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적용능력의 경우, 현장실습 전에는 자신의 지식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현장 적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학생들이 많았으나, 실습 후에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현장 적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적응력과 응용력을 통해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실무 이해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충분히 적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 등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종합해보면,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변화한 모습을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장실습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넘어, 학생들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실무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직무태도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태도에 대한 변화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Analysis of Changes in Attitude

구분	내용	
의사 표현 능력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을 통해 의사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증가함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짐", "이용자와의 소통에서 원활히 표현하고 해결함") 실습 중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 "모르는 부분을 질문함")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표현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질문을 잘 못함")
조직 융화력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직에 잘 융화되었다고 평가함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늘었고 외향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사서 선생님들과 잘 지냈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짧은 실습 기간으로 인해 깊게 융화되지 못함 ("기간이 짧아 깊게 융화되지 않았다")
업무 적극성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을 통해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일을 찾아서 하려는 자세가 강화됨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했다") 주어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함 ("사서가 하면 좋은 일들도 찾아서 했다", "주어진 업무 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조심스럽게 임하는 경향이 있음
성실성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을 통해 성실하게 임하려는 태도가 강화되고, 지각이나 결석을 피하려는 노력이 증가함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했다", "지각도 하지 않았다") 책임감 있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화됨 ("어떤 일을 맡기시든 성실하게 수행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실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업무 이해도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됨 ("전반적인 업무 이해도가 늘었다", "해당 업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상호대차, K-LAS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졌다", "새로 알게 된 내용들도 금방 이해했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함
현장 적용 능력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을 통해 현장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적용력과 응용력이 강화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현장에 잘 적응했다")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전히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을 느끼거나, 충분히 적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적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

IV. 결 론

본 연구는 D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직무태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가 현장실습 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성실성, 업무이해도, 현장적용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장실습 이전에는 배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부족해서 대체로 자신을 능력 및 태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자신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직무태도 형성에 중요한 교육적 도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 창의력 발휘의 어려움,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등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또한, 실습기관에 따라 경험한 업무의 범위와 질에서 차이가 있었고, 짧은 실습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 향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시, 첫째,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강단과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와 현장 사서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전에 학습하거나 실습 후 이를 학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도서관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업무와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습기관 간의 표준화된 실습 프로그램 또는 최소한의 필수 경험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정 기관에서의 여건 등으로 인해 실습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습 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References

ry 2016.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1.30>

- [1]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University Student Work-Study Program Rule,” No. 2022-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8154>
- [2] K-CESA Homepage, <https://www.kcesa.re.kr/index.do>
- [3] J.W. Nam, and S. Y.K. Choi,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Search: Moderating Effect of Enterprising,”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5, pp. 101–110, 2020. <https://doi.org/10.22156/C4S4SMB.2020.10.05.101>
- [4] H.Y. Ka, and B.Y. Kim,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n Career Confidence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2 pp.143–152, 2021
- [5] Y.H Noh, I.J. Ahn, and S.K. Choi, “A study on evaluating the practicaln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o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42, No. 4, pp. 5–29, December 201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5>
- [6] Y.R. Youn, Y.J. Shin, and E.J Lee, “Analysis of the effect of field study on understanding of major knowledg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0, no.4, pp.87–93, 2024.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87>
- [7] E.J Lee, Y.J. Shin, and Y.R. Youn,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n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Skills of College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0, no.4, pp. 227–234, 2024.
- [8] T. A. Wright, R. Cropanzan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5, no.1, pp.84–94, 2000
- [9] Eul Teo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Job Attitude on Proactive Knowledge Acquisition”,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Vol. 24, No. 4, pp. 87–107, November 2023. <https://doi.org/10.15706/jksms.2023.24.4.004>
- [10] Jong-Ryol Lee et al., “The attitude of work performance which affects on the work capability for clinical dental hygieni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pp. 153–164, January